

<2018년 5월 20일 주일말씀>

여호와께 감사해라

본 문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 ◆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 줄까
한 시간 가까이 생각하고 성령께 간구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말씀을 전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 ◆ 그러다 말씀을 타자하는 조은 목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요즘 하나님이 섭리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 ◆ 이때 “여호와께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말씀이 오늘 주일말씀입니다.

-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겠느냐?”

섭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나 안 겪는 자들이나

삼위와 주를 따르며 사랑하는 자들이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되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과 성령과 주께 감사하여라.

<그동안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주를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하여라.” 하셨습니다.

- ◆ 감사해야,

하나님과 성령이 주와 함께 무엇을 해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 ◆ 특히 지금은! 더욱 삼위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지금! <부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지난 수요말씀 기억나지요?

하나님은 “**나의 성산에 너희를 데려다 기쁘게 해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갔으면,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야 됩니다.

<일부>는 감사했지만,
<섭리사 전체>가 하나님께 시인하며 감사하는 것은 못 했습니다.

- ◆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입>으로도 감사하고, <삶> 가운데서도 다 감사할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 ◆ 물론 <지금의 현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좋아하며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 입니다.

<일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삼위와 그 육신이 같이 기뻐하며 사는 때>이니,
진정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 ◆ 사람이 <뇌>에서 ‘할 일’ 을 잊어버리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못 하고 맙니다.

고로 “**잊으면 죽는다. 잊으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는 ‘죽은 자’ 이고, <아는 자>는 ‘산 자’ 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니,
이제 <부활의 때>에 ‘아는 자들’ 이 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일반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다 합니다.

◆ 섭리사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부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를 통해 <그동안 원했던 것들>을 해 주며
우리를 기쁘게 해 주고 계십니다!

고로 반드시

<감사의 대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영광>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감사>와 <행실의 감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 <감사>가 빠지면,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 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 <감사의 말과 기도>, <사랑의 말과 기도> - 이 두 가지는

<부활의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감사>가 ‘여호와께의 전에 들어가는 키(key)’ 이고,

‘여호와께의 사랑의 방에 들어가는 키(key)’ 입니다.

- ◆ 지금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 ◆ 하나님은 <섭리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 주셨습니다.
<기도한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공활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늘 말로 시인하고 삼위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 ◆ <물질 감사>에 앞서
<말의 감사, 심정의 감사, 뜨겁고 진실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도 큰 감사’입니다.

- ◆ <진실한 감사>는 하늘나라에 그대로~ 상달되고,
하나님의 뇌와 마음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뇌에 들어간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는데,
감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뇌에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가 해 줬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자>는

- 하나님께서 아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 생각에서 잊으십니다.
- 그다음에는 해 주지 않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섭리세계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 바랍니다.

- ◆ 섭리사의 형제들이 ‘환난의 고통’ 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난을 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을 감해 주셨습니다.

〈옥의 고통〉 중에, 혹은 〈아픔의 고통〉 중에,
혹은 〈생활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간구한 대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 ◆ 그리고 섭리사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억울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해 주셨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모두, 〈감사의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 전에는 월명동에 와도 쓸쓸하고, 적막하고, 눈물만 나고,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기쁘게 노래도 못 하고 갔습니다.

지금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돌아갈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기뻐서 노래하며 희망에 차서 삽니다.

이렇게 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해야 됩니다.

- ◆ 하나님과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고 좋아하듯
이렇게 기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산’ 으로 불러다가
〈주의 몸〉을 쓰고 기쁘게 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진정 기뻐하고, 삼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 ◆ 아직도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개인적으로 인사를 못 한다고 낙심하고,
자기가 바라던 대로 안 된다고 한숨 쉬며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성산’에 부르셨는데도
거부한 채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성산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연들>을 생각하고
삼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 ◆ 이외의 무한한 것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 ◆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지만,
<감사의 말과 기도, 사랑의 말과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지 진정 깨닫고
더욱 기뻐하며 감사할 것입니다!